[구두로 약속]

승현이는 2019년 3월에 대전우송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승현이는 대학교에 와서 매우 친해진 상배에게 3만원을 3주뒤에 갚는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배는 그 사실을 잊어 버리고, 약속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승현이는 혹시라도 이것을 말하면 쪼잔해 보이지 안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다.

[질문 승현이는 상배에게 돈을 받는 것이 옳을 까요?? 아니면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까요???]

[Don’t telling]

승현이는 대학교에 와서 매우 친해진 상배에게 3만원을 3주뒤에 갚는다는 약속을 Don’t telling어플을 통해 하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과정에서 갚을 날짜, 금액을 서로 등록을 하고 돈을 빌려 준다.  
약속한 3주가 지나고 상배는 그 사실을 잊어 버리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